

(근산 시청)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초등학교 6-1 이다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어린이, 성인 등 다 같이 누려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분은 어린이의 인권 신장을 위해
어린이 날이라는 어린이가 누려할 권리를 침해당한 어린이를 위해
도와주려 어린이 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 계시죠

하지만 저희는 학교가 끝난 후 놀려고 운동장으로 나가면
놀 공간이 없고 놀 공간이 있더라도 약간 습한 곳이라
벌레가 많아 놀기 힘들어요. 이 성산은 어린이가 많지
않더라도 그 소수도 원하는 걸 누려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 어린이는 놀공간이 없어 놀고 싶어도 많이
못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도 재밌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산초 6-1 이다연 올림

(군산시청)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초 이주교사입니다. 인권은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권리이고 자유롭게 살수있는 게
 인권의 한가지입니다. 방정환씨는 어린아이를 위해 어린아이를
 만들었고 지인 불륜 장권은 동학농민운동지표자로 모르게 했고
 이종득을 사반통을 어서했습니다. 조종강씨는 시민을 위한 제도심의회는
 불복을 해서 왕에게 힘을 안을만하고 왕이 부당함을 써주었는
 데 조종득님에게는 노역자를 위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권 침해사항만 안 있습니다. 성산초 에 놀러가
 보면 노역이 교실에서 이야기만 돼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가 많아지면 친구들과 놀이기구도 많이 놀길 권
 교실에 있는 시간은 자칫 잊을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산초 이주교사